

2026-1 TUHH 교환학생 활동보고서

학번/이름 : 2021-16778 / 조선해양공학과 조윤규

파견 대학 : TUHH(Technical University of Hamburg Harburg)

파견 기간 : 2026.04.01 – 2026.08.30

I. 교환 파견 동기

선박 구조설계와 친환경 해양기술에 관심이 있어, 유럽 조선·해운 산업의 중심지인 함부르크에서 국제적인 관점을 기르고자 TUHH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했습니다. TUHH의 선박 구조 및 지속가능한 해양기술 관련 교육을 통해 전공 지식을 심화하고, 항만·물류 도시 함부르크에서 산업 현장과 학문의 연결을 직접 경험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과 교류하며 협업 및 의사소통 역량을 키워, 향후 친환경 선박과 해양 구조물 분야의 글로벌 엔지니어로 성장하고자 교환학생에 지원하였습니다.

II. 파견 대학 및 지역 소개

함부르크는 독일 북부의 항구도시입니다. 북해와 연결되는 수로를 통해 내륙 도시이면서도 국제 무역항의 기능을 수행하며, 유럽 물류·해운 산업의 주요 거점으로 기능합니다. 도시가 바다에 밀접해 있어 실제로 시간을 조금만 투자하면 바다와 거대한 선박들을 직접 감상할 수 있습니다. 도시 내부에는 알스터호와 엘베강 지류, 운하가 넓게 분포해 있어 수변 공간과 항만 시설이 도시 구조에 깊게 결합되어 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 (S-Bahn) 등을 이용할 때 심심치 않게 강이나 바다를 볼 수 있다는 장점과, 날씨가 굉장히 변덕스럽다는 단점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제가 파견된 대학교는 TUHH(Technical University of Hamburg-Harburg)입니다. 해당교는 함부르크 중에서도 하부르크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 이는 함부르크 중앙역에서 지하철을 이용하여 3-40분 정도 추가로 이동이 필요한 외곽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공과대학교이기 때문에 서울대학교처럼 인문계열이나 예술계 쪽 학과는 존재하지 않으며, 오로지 공학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Ⅲ. 출국 전/직후 준비 사항

1. 비자

한국에서 출국하기 전에 비자를 발급받는 것이 기본이고, 가장 권장되는 방법입니다. 독일 대사관에 여러 문서들과 함께 비자 발급 문의를 넣으면 되는데, 대사관 처리 속도가 빠르지는 않아서 최소 2달, 빠르면 3달까지도 전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만 저같이 철저한 계획을 하지 못하여 비자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방법은 존재합니다. 독일은 쉥겐 협정 국가로 90일까지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입국 후, 독일 내에서 거주허가증 (Residence Permit) 을 받으시면 됩니다. 거주허가증은 발급 비용과 빠른 처리(거주 허가증 실물 카드 발급)에 요금이 꽤 부여되는 것과, 빠르게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90일 무비자 기간이 끝나 다른 나라로의 여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단점이 있으니 최대한 한국에서 먼저 비자를 발급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2. 기숙사

기숙사의 경우 입국 전 한국에서부터 해당교와 메일을 주고받으며 처리하실 가능성이 큼니다. 저의 경우 한국에서 500유로 정도의 보증금과, 첫 한달 반의 월세를 미리 지급하였습니다. 월세는 기숙사마다 다르지만 저의 경우 420유로를 납부하였고 Schuttstrasse에 위치한 6인 1실(남성 전용)이었습니다. 기숙사의 전반적인 퀄리티는 만족스러웠습니다. 다만 3군데 정도 다른 곳에 기숙사가 흩어져 있었고 같은 건물이라 하더라도 6인 1실, 4인 1실 등 분화되니 기숙사의 상태는 직접 도착하여 확인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3. 보험

비자 신청을 위하여 보험을 들어야 하는데, 공보험과 사보험이 있습니다. 공보험의 경우 저는 가장 안전한 TK 공보험을 가입하였고 매달 150유로 상당이 부과되었습니다.

사보험을 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인데, 이 경우에는 비자 발급 시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해야 하여 조금 더 번거로워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막상 공보험을 들면 매달 상당한 금액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아까울 수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가다실 맞는 것을 많이들 추천하시는 것 같습니다. 돈이 아까우시면 노력을 들여서 사보험을, 마음이 편하려면 공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은 어떨까 생각됩니다.

4. 차단계좌

이것 역시 비자를 위한 증명에 사용되는 것으로 해당 기간 동안 독일에서 돈을 벌지 않아도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개념으로 요구됩니다. 한번에 송금한 이후에 매

달 일정 금액이 사용할 수 있는 계좌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5. 안멜둥/압멜둥

독일로 교환학생을 오시면 반드시 안멜둥, 즉 거주지 등록(city registration)을 진행해야 됩니다. 안멜둥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거주지 주소가 필요하며, 그렇기 때문에 독일에 직접 오신 후 집 관련 계약서를 받고 나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입국 후 2주 이내에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알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해당 사이트에서 신청을 원하는 날짜를 2주 정도 전에 미리 예약(termin)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설사 타이밍을 놓쳤다 하더라도 아침에 확인하면 취소료가 많이 생기니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거주허가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 안멜둥이 사전에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해당되는 분들은 독일에 도착한 후 집 계약서 확인 -> 안멜둥 -> 차단계좌,보험 및 다른 서류 준비 -> 거주 허가 신청의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멜둥의 경우에도 상당한 금액이 요구되고, 제가 갔던 곳 기준으로는 오로지 카드로만 처리되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사진의 경우 신청하는 기관에 사진 찍는 기계가 따로 마련되어 있으니 준비 안 하고 가셔도 되며, 되려 저는 준비해갔던 사진을 쓸 수 없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압멜둥의 경우 반대로 교환학생이 끝날 때 거주지 말소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멜둥과 같이 예약(termin)을 받고 진행하시면 되고, 절차가 훨씬 간단합니다. 출국 2주 이내에만 압멜둥을 처리해주니 그 점만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 준비물

밥솥은 있으면 좋습니다. 외식 물가가 비싸 좋은 음식 무조건 요리는 하게 될 텐데, 밥솥이 있으면 요리 퀄리티가 한참 올라갑니다. 외식의 경우 학생 식당에서는 5-6유로 정도, 일반 식당에서는 케밥(7-8유로) 제외 기본 10유로 정도는 나간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름에 오시고, 집에 여유가 있으시면 작은 선풍기 하나 가져오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기숙사 내에는 따로 선풍기나 에어컨이 없으며 2026년 기준으로 살인적인 더위가 와서 방 안에서도 땀이 나던 날이 20일 정도는 되었던 것 같습니다. 2026년도가 특별히 유럽의 날씨가 변덕스럽기도 했으나, 엘리베이터도 없는 기숙사가 많으니 더위에 조심하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VI. 학업

저는 전공과목 수업을 수강하지는 않았으며, NTA(non-technical course)와 독일어수업을 수강하였습니다. 두 과목 모두 인기가 많으니 반드시 빠르게 수강신청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TUHH의 수강신청은 서울대학교와 달리 시간이 주어지고 모두가 같이 한꺼번

에 하기보다는 열리면 알아서 수강신청을 하는 느낌이라 수시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일어 A1.1 수업은 가장 기본적인 독일어 수업입니다. 인사, 발음부터 차근차근 알려주는 수업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데 어렵지는 않으나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는 점은 유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독일어 수업의 경우 희망자가 많으면 A1.1, 즉 가장 쉬운 코스를 하나 더 추가적으로 열어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독일어 A1.1 코스의 경우 대부분 같은 교환학생들과 같이 수강하게 되어 친분을 다지기에 좋아 추천드립니다.

NTA 수업의 경우 저는 blue engineering 수업을 수강하였습니다. 현지 학생들과 같이 수강하였으며 NTA수업의 특성 상 학기 전체에 4번, 각 4시간-7시간-4시간-7시간으로 진행되며 시험이 없는 토론형 수업입니다. 조별 수업이 주를 이루며 3시간 정도의 조별 활동을 구성하는 것이 평가 요소입니다. 큰 부담 없이 가볍게 수강하실 수 있는 수업이고 유럽 특유의 자유로운 토론 분위기를 경험해보고 싶다면 추천드립니다.

V. 생활

1. 식생활과 물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외식 물가가 높고 근처에 괜찮은 식당이 많지 않아 스스로 요리를 해먹으실 가능성이 큽니다. Schuttstrasse 기준 주변에 대형 마트들(REWE, EDEKA, NETO)들이 준비하여 원하시는 품목을 구입하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고 라면도 개당 1.7유로 정도에 어디서든 팔고 있으니 한국의 맛이 그리워져도 쉽게 충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한식 식재료는 한인마트, 혹은 goasia 라는 아시아 전문 식료품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데 하부르크에는 goasia가 없기 때문에 함부르크 시내에 가서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2. 교통

한국에서 교통 패스를 구입하기 위하여 돈을 지급하라는 연락을 받으실 겁니다. 해당 금액을 납부하셨다면 학교 홈페이지에서 교통 패스를 받으실 수 있으며 받는 즉시 애플페이로 저장해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교통 패스로는 독일 전역의 지하철, 버스, 지역 열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 IC/ICE라는 독일 고속 열차의 경우 이 교통 패스를 이용하실 수 없고 따로 추가적으로 구매하셔야 된다는 것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독일은 한국과 달리 지하철이나 버스를 탈 때 카드를 찍는 시스템이 아니라 무작위로 검표원이 검표를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귀찮은 일에 휘말리기 싫으시면 대중교통을 탈 때 핸드폰이 방전되지 않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3. 은행

저는 expatrio 앱에 있는 expatrio계좌와 함께 N26이라는 계좌를 사용하였습니다. N26계좌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비자카드로 유럽 전역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유럽으로 돈을 송금할 때는 MOIN앱을 사용하였고 최초 차단계좌에 돈을 송금하는 것 외에는 환율을 보며 최대한 적을 때 송금하는 식으로 돈을 아끼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4. 통신

통신의 경우 Vodafone, O2 등등 여러가지 통신사의 요금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fraenk 통신사에서 50GB 15유로 요금제를 사용하였고 나름대로 만족하고 살았습니다. Fraenk의 경우 친구 추천코드를 입력하면 5GB를 추가로 지급하고 유럽 전역에서도 잘 작동해서 개인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금제 해지의 경우 특정 날짜 이후에는 다음 달까지 요금을 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으니 15유로를 아끼고 싶으시면 해지 날짜를 잘 맞추는 것 역시 추천드립니다. 추가로 기숙사 자체 WIFI의 경우 가끔씩 연결이 끊기고 한국 사이트를 이용하고자 할 때 대기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5. 국제교류

TUHH에서는 국제교류를 위하여 자체적인 행사를 많이 만들어 놓습니다.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고 신청한 날짜에 참가하셔서 다른 나라의 여러 학생들과 교류하는 기회를 잡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매주 수요일 Stammistch가 열려 바에서 TUHH뿐만이 아닌 함부르크 여러 대학에 교환학생 온 다양한 나라의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으니 참가하셔서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 학생들과 친해지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교환학생의 목표가 다양한 나라의 친구들을 만들고 싶은 것이라면 본인이 열심히 대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같은 기숙사 학생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고 학기 초에 진행된 여러 프로그램에서 만난 친구들, 같이 독일어 수업을 듣는 친구들과 끝까지 친하게 교류하였습니다. 편안하게 한국인들을 찾고 같이 어울리는 것도 교환학생을 즐기는 방법일 수 있으나 외국 친구를 만들고 싶다면 어느정도 마음의 문을 열고 불편하더라도 서로 다가가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6. 여가

교환학생에서 한국과 다르게 여가를 즐기는 방법으로는 여행과 함부르크 내의 활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함부르크에서는 자체적으로 여러가지 축제를 개최합니다. 저는 박물관의 밤, 공항 100주년 행사, 불꽃놀이 등에 참여하는 등의 활동을 했는데 그 밖에

도 여러가지 축제 및 즐길 거리가 찾아보면 많으니 검색해보고 관심이 가는 것들은 참여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여행은 교환학생에서 필수적인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유럽의 10개국을 방문하였으며 제 주위의 다른 한국 교환학생들은 저보다 훨씬 더 많은 나라들을 방문하는 것 같습니다. 여행 관련해서는 여러가지 자신만의 기준이 있겠지만, 돈을 최대한 절약하고 싶다면 최소 2주 많으면 몇 달 전부터 계획을 하시는 것이 무조건 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교통편의 경우 기차, 버스(flixbus), 비행기 중에서 비용과 시간 등을 보고 정하시면 되며 저 같은 경우 omio앱에서 전체를 한번에 빠르게 비교한 후 교통편을 정하였습니다. 여행지의 경우 유명한 것들은 몇 달 전부터도 표가 매진되니 빠르게 계획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 로마의 콜로세움과 바티칸 시티 정도는 미리 예약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VI. 소감

가끔 인간 관계가 힘들 때 저는 아무도 저를 모르는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몇몇 내향적인 분들은 저랑 마찬가지로 비슷한 생각을 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환학생은 그런 생각이 실제로 실현될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회입니다. 정말 모든 것이 낯설고 서류처리부터 요리까지 모든 것을 자의적으로 해쳐나가야 하고, 그 과정에서 때로는 정말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정말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외국의 학교에서 같은 과목을 수강하며 비슷한 듯 다른 학문적 접근법을 배울 기회도, 말도 안 되는 사고를 당해서 혼자 처리하기 위해 고군분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끝내면 조금 더 시야가 넓어진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TUHH에 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메일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mail : yungyu0323@snu.ac.kr